

농어촌공사 창원지사,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위한 안전보건협의체 개최

✎ 박슬옹 기자 | ☎ 승인 2026.09.16 17:29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가 16일 안전보건협의체를 개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는 16일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and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를 개최했다.

안전보건협의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구다.

협의체에서는 작업시간과 사업주·수급인 간 연락 방법 및 공정 조정, 작업장 위험성 평가, 재해 발생 위험 시 대피 방법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 전반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체에는 건설현장 관계자와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등이 참석해 안전하고 청렴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을 다짐하고 현장 안전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공사감독과 현장대리인들은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기본적인 안전관리 절차와 대응 방법을 점검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는 현장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조원득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장은 “안전 5대 핵심수칙을 준수하고 기본에 충실한 안전관리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사감독과 현장대리인이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슬웅 기자 so5262@newsgn.com